香壇의 建築空間 構成手法 硏究

魯東聖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수료)
洪大炯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공학박사)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한국의 전통 주거는 안채, 사랑채, 행랑채, 사당 등의 단위건물이 모여서 하나의 군을 형성하면서 완결된 형태의 공간을 이룬다.

또한, 개개의 채들은 내부 칸의 조합에 의해서 구성된다. 이러한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의 사이에서 존재하는 관계와 질서를 본 연구에서는 "關係構造"의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계구조"는 脈絡的, 構成的 개념으로 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맥락적 개념은 意味體系와, 구성적 개념은 形象化體系로 구축된다.

이러한 맥락적, 구성적 개념은 공간-동선체계로 공간적 감흥을 유발시킨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관계구조를 분석의 틀로 설정하여 향단을 분석하려고 한다. 향단은 悔齋 李彦迪 선생이 계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재 선생이 事物을 보는 시각이 理에 근원을 두고 있으므로, 형상화된 공간 형태 요소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構造主義的 思惟體系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구조의 분석틀은 유교적 체계를 가진 조선시대의 班家를 분석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 작업을 위해 香壇의 건축 현황에 대한 물리적인 조사 작업을 선행했다. 향단은 기존에 실측이 되어 있는 상황[1]이었고, 이 실측된 도면을 가지고 건물의 현황과 비교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기존연구와 양동마을과 향단에 관한 인문 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문헌조사 및 분석자료와 실측보완자료에 근거하여 향단의 공간 구성에서의 관계,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과 아울러 향단에 작용하였던 關係의 論理를 추론하여, 香壇 空間構成手法의 特性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관계구조 분석의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로써 한국 주거 건축의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2. 香壇의 考察

2-1. 香壇의 歷史

香壇에 대해서는 悔齋 李彦迪이 선생의 아우인 李彦适[2]을 위해 지어주었다는 것이 일반적

1)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재수리보고서(下)」 1994년도 판에는 향단의 보수, 복원을 하면서 작성한 도면이 수록되어 있다.

2) 이언괄(1494~1553)은 회재 이언적의 아우로 3세 연하였다. 평생동안 고향에서 노모를 봉양하느라 벼슬은 參奉과 松羅察訪에 그쳤다. 이장우, 「양동의 문학」, 「양좌동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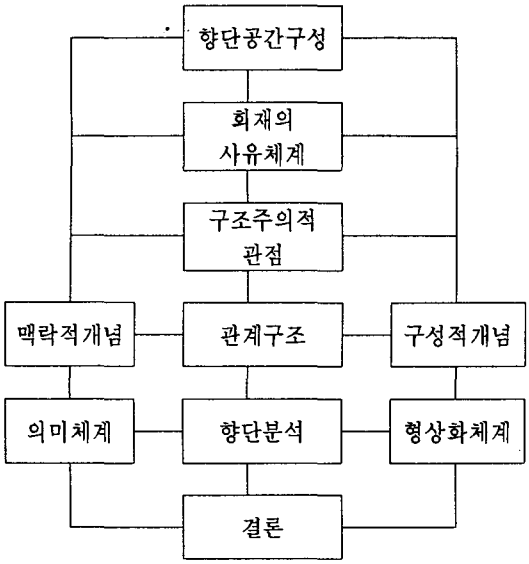

표 1 연구의 진행표

이다. 회재선생 年譜를 보면 회재선생은 평생 관직에 있었고, 어머니는 동생이 모시고 있었음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지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영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향단이라는 이름이 香壇派의 시조였던 李宜蒧의 雅號라는 사실로 볼 때, 이의주가 지파를 형성하면서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3]

본 연구의 성격이 복원적 고찰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계의 일반적인 학설인 회재 선생이 경상감사로 있을 당시에 지었다는 것[4]으로 생각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2-2. 香壇의 變遷

향단은 6.25 때에 건물이 폭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현재의 모습은 1976년에 복원된 모습이지만, 김광언[5]과 서동식[6] 등의 추정 복원도와 비교해 보면 세세한 변화는 있으나 전체적인 틀은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단은 1964년에 보물 412호로 지정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수가 이루어져 있으며, 1994년부터 향단 본채, 담장 등의 보수와 사랑채의 건립, 문간채의 건립 등 복원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7]

2-3 향단의 현황

평면은 일자형 행랑채와 日자형 몸채가 연접해 있어, 거의 한 동처럼 보이는 집약된 평면을 이루고 있다.

행랑채는 우측 단에 마루 1칸을 두고, 중문을 두었으며, 중문 좌측으로 다시 마루 1칸과 방 1칸을 두어 행랑인이 거처케하였고,. 행랑방 좌측으로는 광을 일렬로 늘어놓았다. 몸채는 우측에 사랑채를 두고, 좌측으로는 안채를 구성하면서 서로 연이어 건축하여 전체적으로 한 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중앙에 3칸 크기의 대청을 두고 뒷면 안마당 쪽으로 반 칸 폭의 툇마루를 두었다. 그리고 사랑대청 좌우로는 사랑방을 계획했다. 이 사랑방 한쪽은 안채와 마루방과 온돌방으로 연결된다. 안채는 부엌이 헛간과 연이어 있고, 안방은 가운데 안대청을 두고 ㄱ자로 꺾이어 건축되어 있다. 부엌 옆 헛간 윗층에는 마루로 된 헛간을 둔 것이 이채롭다.

행랑채를 보면 막돌허튼층 쌓기의 높은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원주를 세워 소로받침 없이 납도리를 받고 있는 민도리집이다. 처마는 홑처마이고 한식기와를 얹은 맞배지붕으로 양측 박공면에는 풍판을 달았다.

사랑채는 행랑채와 같은 막돌허튼층 쌓기의 기단 위에 장대석으로 마무리하였으며, 막돌초

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0, p.299

3) 雅號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아호의 작성방법은 집의 이름으로 하거나, 그가 간직한 것으로 하거나, 혹은 얻은 바의 실상으로 호를 짓는다는 것을 볼 때 이의주의 향단이란 아호는 집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4) 「문화재경주」, 경주군, 1990

5) 김광언, 「한국의 옛집」, 마당, 1982, p59

6) 서동식, 「향단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7)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수리보고서(下)」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1994, pp352~372

석을 놓아 원주를 세웠다. 구조 양식은 초익공계로써 초각 없는 익공이 외부로 뻗어 있다. 가구는 5량인데 파련대공으로 종도리를 받치고 있으며, 처마는 홑처마이고, 한식기와를 얹은 맞배지붕 형식으로 사랑채 정면 양측으로 박공을 만들어 풍판을 달았다.

안채는 낮은 막돌허튼층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높고 원주를 세워 납도리를 받친 민도리집이다.

처마는 홑처마이고, 역시 맞배지붕을 이루고 있다. 안채는 5m×5m 정도의 작은 중정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안대청이 중정 쪽으로 향하지 않고 행랑채 지붕을 보도록 계획한 것은 유례가 없는 구성이다.

이것은 안마당과의 기능적 관계보다는 외부공간으로 전망을 중시한 의도라 보인다. 안마당의 폐쇄성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로 1칸의 마루와 사랑채에 툇마루를 달았고, 이 툇마루를 통해 사랑채와 연결된다. 중정 2개 중 하나는 행랑 마당으로써 노천 부엌과 같은 기능을 하며, 아궁이쪽만 지붕이 덮이고 실제 활동은 중정에서 하도록 되며, 한쪽엔 경사로가 있어 바깥 행랑채와 연결된다.

3. 悔齋 李彦迪의 思惟體系와 關係構造

3-1 悔齋의 生涯[8]

회재선생은 1491년, 현재 양동마을의 서백당에서 아버지 蕃과 어머니 孫씨 부인사이의 2남 1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24세이던 1514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주요 관직을 거쳐 1547년 유배되어 63세되던 1553년 평안도의 유배지에서 별세하였다. 회재선생은 조선의 五賢으로 추앙 받고 있다.

조선의 유학은 처음 勳舊派와 士林派의 두 갈래로 맥을 이어왔는데, 회재는 嶺南士林派를 형성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다.[9]

회재는 道體의 절대성을 명확히 설명한 공적이 있다. 그러나 회재의 학문적 위대성은 道體의 본원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학정신의 본질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회재 학문의 의의가 있다[10]고 한다.

3-2 悔齋의 思惟體系

회재가 생각하는 理는 어떠한 事物에도 모두 존재한다. 森羅萬象에서부터 形而上의 일에까지 理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그의 시 「次忘機堂韻」에서 언급하고 있다.[11]

만물이 생성될 때에는 하찮은 微物이라도 역시 理를 가지고 있고, 개개의 만물뿐만이 아니라, 개개의 것이 모인 것을 한 집단으로 볼 때 거기에도 理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理가 곧 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

만물의 理가 氣를 體로 해서 생성된 것이다. 理와 氣의 관계를 보면 만물의 한 근원으로써 생각해 볼 때 理는 같고 氣는 다르며, 만물의 다른 體로써 볼 때는 氣는 오히려 같은데 理는 다르다는 것이다.

3-3. 關係構造와 空間構成

關係라는 용어는 전체, 그 전체의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간의 관계를 지칭한다.

즉, 관계는 구조적인 의미에서 대상 안에 잠재되어 있는 관계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구조는 理로 파악할 수 있다. 전체나 부분들의 관계는 상대적인 관계가 생기게 된다. 관계구조에서는 모든 성질은 내부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외부와의 상대적인 관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오행설의 相生相剋論은 상관관계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오행설에서 상생상극은 정해져 있다. 관계구조는 그 상생과 상극, 즉 상승효과와 상쇄효과가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

8) 「국역 회재전서」 이언적 저, 이동건 역, 묵민회갑기념사업회, 1975

9) 李宗裁, 「회재철학의 연구」, 「양좌동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0, p147

10) 이종재, 앞의 글, p147

11) 金時杓, 「悔齋 李彦迪 漢詩 硏究」, 계명대학교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83, pp22~27

정해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대적인 관계를 구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피아제는 다양한 해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구조주의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론적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구조란 전체성, 변환, 자율조정과 같은 세 가지 기본개념을 구현한 실재의 배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12]

또한 '구조란 계층으로 이루어진 내적 관계의 자율적 전체이다.' 라는 정의에서 보면 내적 관계라는 특성을 지닌 구조의 개념은 각 공간 형태 요소간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써, 구조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관계망이며, 그 관계의 교차가 사항을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제 사항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를 규정짓는 관계의 망은 계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구조라는 하나의 총체는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으며, 그 부분들은 부분 상호간에,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루고 있는 전체와도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관계구조에는 맥락적, 구성적 개념, 그리고 인지적 개념으로 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맥락적 개념은 의미체계로, 구성적 개념은 형상화체계로 구축된다. 또한 공간의 구조는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 체험되는 인지개념의 공간-동선체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관점하에서 유교적인 理의 체계와 구조적 관점에서의 관계구조는 같은 맥락으로 파악될 수 있다.

4. 香壇의 意味體系

4-1 향단의 位相과 대지 위치

현재 향단의 위치는 마을의 입구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있다. 양동마을로 들어서면서[13] 가장 먼저 진입자에게 인상적으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향단이다. 이렇듯 외관적으로 쉽게 인식되도록 의도적으로 세워진 것은 향단을 설계할 당시에 이 건물이 갖는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향단의 건립연대는 불분명하지만 향단이 마을에서 갖는 위상은 이씨 문중 중에서 2번째로 높다. 향단은 이언적의 아우 이언괄로 시작하는 향단파의 宗家로 대종가인 無添堂에 이어 두 번째인 가문적 위계를 가지고 있다. 이 가문적 위계는 孫氏 문중과 대립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같은 위계에 속하는 손씨 문중의 觀稼亭에 대응하는 위치 설정으로 해석된다.

택지의 선정은 양동마을의 사회적, 지형적 관계로 나누어진다.

사회적 관계는 신분에 따라 형성된 양반 생활권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과, 지형적 관계는 풍수와 연관되어 4개의 능선 안에 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손씨 문중과의 대립적 관계에서 건물의 위치를 결정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양동마을에서의 손씨와 이씨 가문은 각각 2개씩의 골짜기를 차지하고 있다.

관가정에 비해 향단 대지의 방향과 위치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하지만 대지를 인공적으로 축대를 쌓아서 적극적으로 좋은 위치와 좋은 방향을 만들었다.

4-2 대지경사와 건물 배치

전통적인 건축에서 坐向에 대한 고려는 세가지로 설정된다.

向에 대한 고려와 地勢에 대한 고려, 그리고 眼帶에 대한 고려이다. 향단의 坐向은 향을 기준으로 볼 때 南南西向을 하고 있다. 그러나 地勢인 지형의 경사는 南東向으로 되어 있다.

건물의 坐向과 지형 축의 차이는 무엇을 우선

12) 소두영, 「구조주의」, 「대우학술총서14」, 민음사, 서울, 1988, pp90~94

13) 마을의 입구가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관가정 주변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논리는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입구가 관가정 주변이라고 한다면 향단의 위치는 진입자를 마주 보고 있는 형태가 되어 더욱 눈에 잘 띄는 형태가 된다. 강동진, 「경주 양동마을의 해석과 보전방법론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학전공 박사학위논문, 1997 p135 참조

적으로 고려하느냐의 문제이다. 향단은 형태적으로 외부로 드러내고자하므로 지형을 인공적으로 조성했다. 즉 축대를 쌓아서 경사를 조절하여 건물의 좌향을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좌향에 대한 인식이 고려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眼帶에 대한 고려와 向에 대한 고려, 그리고 마을진입자가 진입도로에서 인지되는 향단의 형태에 주목하여 건물의 좌향을 결정한 것이다.

사랑채에서는 성주봉을 안대로 하고 있다. 이것은 주변 자연 환경 속에서 좌우에 산을 관념적인 영역의 끝으로 삼아 중심에 건축물을 위치시키면서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지의 경사와 좌향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건물의 방향을 잡고 있다.

이것에 반해 관가정과 서백당은 대지의 경사와 안대를 있는 그대로 자연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건물의 배치를 해결하고 있다.

4-3 배치의 영역구성과 신분제도

향단의 영역 형성은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위계적 구성을 하고 있다. (그림1)

첫번째는 대문과 아래채, 그리고 마당이 이루는 영역이고, 두 번째는 사랑채와 안채가 결합되어 중앙에 두 개의 마당을 만들고 있는 주거영역이며, 세번째는, 현재는 뒷산이지만 과거에 사당과 별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채의 기능은 마구간, 고방, 도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영역은 높은 기단 위에 좌우로 중앙의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이 구획되어 있다.

공간 영역의 구분은 축대 쌓기에 의한 높은 단차에 의해 구획되었다. 행랑채와 안채는 대지의 기준 높이를 달리하여 위계를 확실히 하고 있다. 일반적인 주거의 공간 구성은 서백당의 경우처럼 행랑채와 안채가 일정한 평면상의 거리를 둠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하지만 향단에서는 건물 한 층 높이의 기단을 만들고, 행랑채와 안채를 최소한으로 통로 폭만 확보하고 인접시켜서, 평지에서 보다 더욱 확실한 공간적 위계를 설정하고 있다.

5. 형상화 체계

5-1 안마당과 중심성

중심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중심되는 위치에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법과, 중심되는 주변에 건물을 배열하여 중심 공간을 비워두는 방법이 있다.

우리의 전통 주거의 안마당은 중심을 비워두는 방법으로 형성되고 있다.

향단도 마찬가지로 안마당이 생활의 중심이므로, 빈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심인 안마당 공간의 구성을 보면 사각형의 기본 틀로 하고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사각형의 윤곽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바닥에서부터 지붕까지 형성되어 있는 수평켜를 보면 4개의 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2)

각각의 켜들은 한정하는 공간이 모두 다르다. 첫 번째의 가장 밑의 켜는, 마당 바닥을 정사각형의 형태로 비워둔 채로 구성했다. 이 정사각형의 형태는 중심성이 강한 형태의 기하학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경사가 없이 수평으로 구성되어, 시선과 동선이 안마당에 접한 사면으로 연결되는 구성이다.

관가정의 안마당도 중앙에 직사각형의 마당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평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경사가 있어 안대청으로 향하는 일종의 방향성을 가지는 구성이다.

2번째의 켜는 통행을 위한 레벨이다.

이것은 일반주거에서 보이는 형태로 가운데의 안마당을 밟지 않고 다닐 수 있게 하며, 건물과 안마당을 경계짓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 켜의 형태 구성은 안방영역에서의 툇마루 돌출로 정사각형의 모양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 통행은 한 방향성으로 움직이게 된다.

한편, 관가정에서는 방향성을 제어하는 방법

으로 사랑방의 벽장을 돌출시켜 사각형의 구성을 깨고 동선도 차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번째 켜는 공간의 시각적 확장이 이루어진다. 사랑대청 방향으로 벽체의 칸막이가 반칸 물려 있고, 진입 맞은 편으로는 마루 영역으로 시각적인 확장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안방과 안대청에서 연결된 툇마루로 인해 반대편 방향의 사랑대청과 마루로의 시각적 공간 확장이 이루어진다.

다음 4번째는 지붕처마 켜로써 위에서 공간을 묶어 시각을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붕 처마 끝의 높이를 4면이 동일하게 처리하여 빛우물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서백당과 관가정 등 일반주거에서는 처마 높이가 위계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 이것은 안대청으로 많은 빛을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안대청의 기단을 높이고, 처마도 높여 처리했다. 하지만 향단의 경우는 안대청이 외부에 접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구성이 아니고, 사면이 동일한 바닥레벨과 동일한 지붕 처마 높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켜의 구성에서 보면 가장 아래와 가장 위 부분의 켜만 사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고, 가운데의 켜들은 자유로이 구성되는 공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 공간확장

향단은 ㅁ자형 안채 부분에서 모퉁이를 개방시킴으로써, 안마당을 부엌 공간과 연결하는 ㄱ자형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안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퉁이를 통해 확장되는 공간을 간략하게 표시해 보면 그림과 같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모퉁이를 개방시키고 있는 ㅁ자형 주거 형식에서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공간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향단의 특성은 작은 안마당을 넓게 보이기 위해 모퉁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특히 부엌으로 통하는 통로와 안마당의 관계는 방향성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5-3 안채의 구성 관계

향단의 특성은 안채의 공간 구성이 다른 주택과 다른 것이 가장 큰 것이다.

향단의 구성은 안대청을 중심으로 ㅣ 모양으로 되어 있다. 공간 사이에는 동일한 바닥 높이로, 안대청으로 개방할 수 있는 문을 두고 있다.

안방은 안마당과 부엌, 그리고 통로와 안대청 등 4면에 접하면서 각각 공간이 연결이 되도록 개구부를 두고 있다.

이것은 안방에서 집안 전체의 움직임과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우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서백당의 경우에는 안채에서는 행랑채나 사랑채의 동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청에 난간을 둔것도 특이하다. 종종 양동의 주택들에서 난간이 있는 것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전면에 두는 형태는 향단 밖에 없다.

안대청의 구성은 기둥에서 툇마루를 달아낸 형태로 해결하면서 안대청의 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인해 건너방의 부엌으로 통하는 독립된 출입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5-4 사랑채의 공간구성

서백당과 관가정에 비해 다른 구성이다. 향단은 가운데 사랑대청을 두고 양옆으로 큰사랑과 작은사랑을 배열하고 있으며, 안마당과 판문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다.

안마당의 폐쇄감을 사랑대청의 판문을 열므로써 사랑마당으로의 시선이 확장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 수법은 안마당이 갖고 있는 중심성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향단의 공간 사용 기능과도 관계가 있다.

중심성은 안마당이 갖는 특성으로 이 곳에서는 시각적으로 향단의 모든 공간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안마당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된 일부의 사람이다. 안마당으로 통하는 동선의 구성상 위계적 구성으로 인해 양반의 직계 가족만이 이 공간을 이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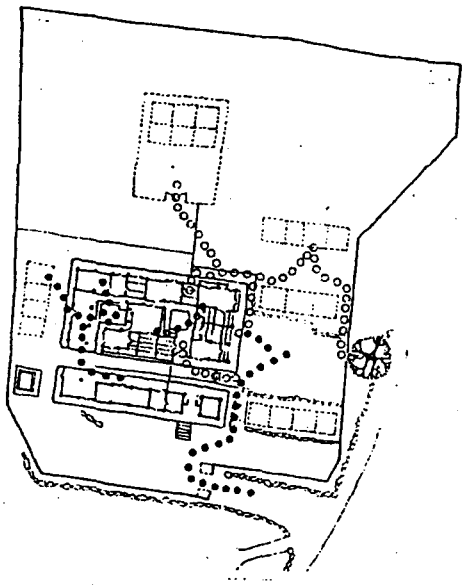

그림1 향단의 복원추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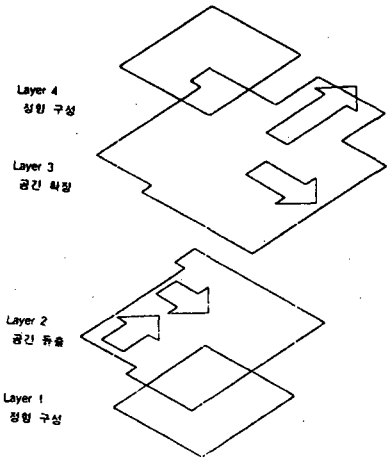

그림2 향단 안마당의 수평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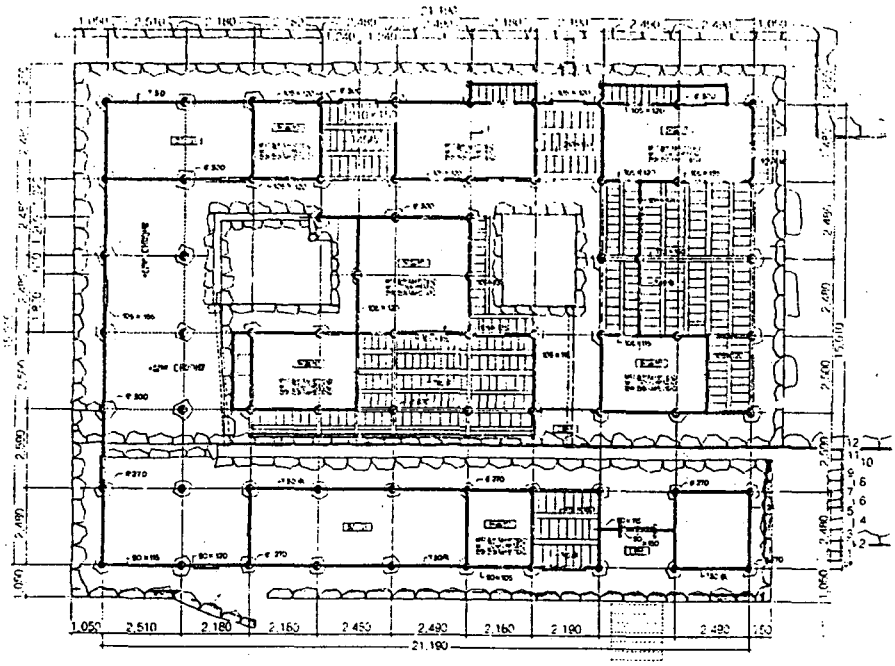

그림3 향 단 평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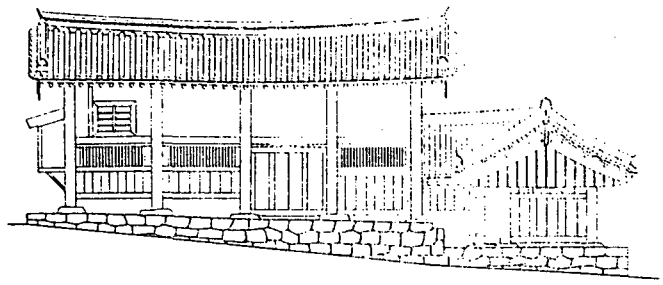

그림8 본채-행랑채 좌측면도

그림9 행랑채-본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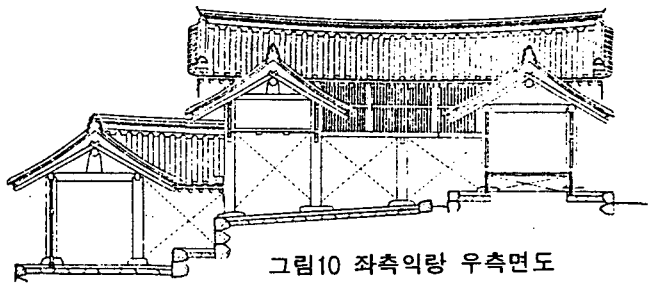

그림10 좌측익랑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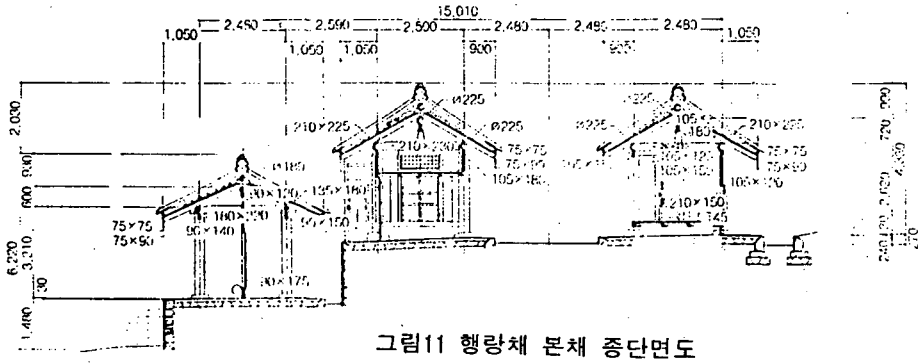

그림11 행랑채 본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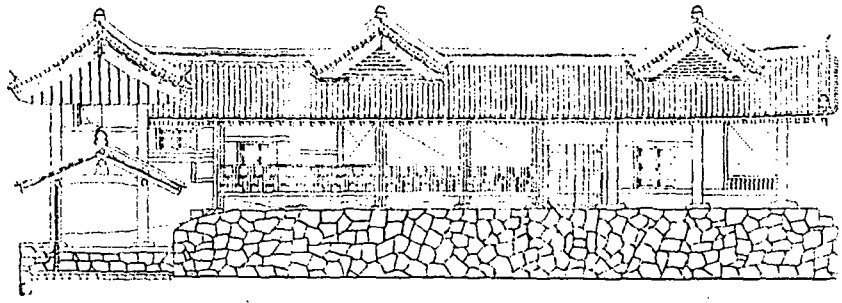

그림4 본 채 정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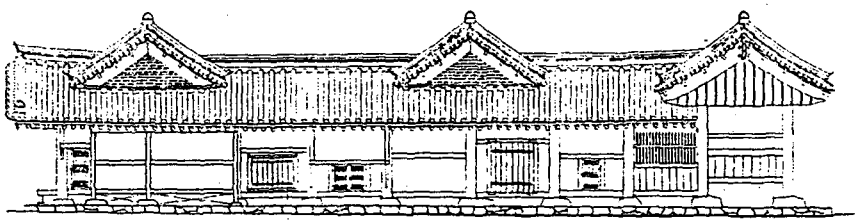

그림5 본 채 배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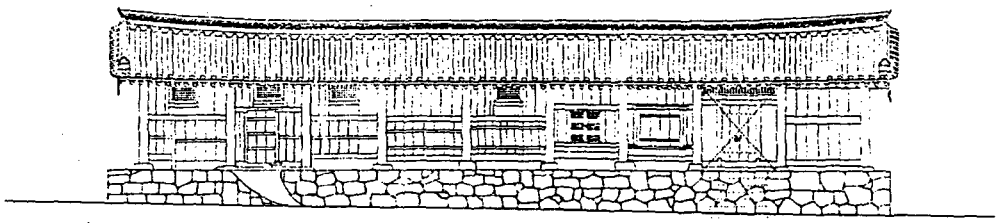

그림6 행 랑 채 정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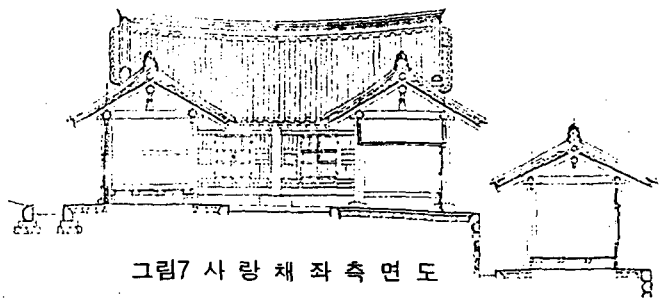

그림7 사 랑 채 좌 측 면 도

또한 안마당에 직접 면한 공간은 안채에서는 안방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랑과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5-5 지붕과 입면구성

지붕이라는 요소는 한국 전통 주거의 미를 말할 때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건물을 볼 때 전체 입면 높이의 거의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인식은 거의 지붕에 따라 정면성이 결정된다고 보아도 무관한 것이다.

향단의 지붕은 특이하고 매우 인상적이다. 내부 기능의 위계에 따라 구성된 가구 형식에 의해 외부로 순수하게 형태가 결정되고 있다. 3개의 박공판은 각각 사랑채, 안채, 부엌의 공간을 나타낸다. 이들의 공간으로 외부로 보여줌으로써 동선을 유도하게 된다. 그리고 전면에 행랑채 지붕이 수평적 띠로써 구성되므로 공간은 상당히 다양하게 인지된다.

마을 입구에서 향단을 바라볼 때에는 정형적인 대칭의 건물로 인식된다.

하지만, 가운데 안대청의 지붕과 사랑대청의 지붕은 같은 5량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에, 부엌쪽의 지붕은 3량 구조로 규모가 작다. 따라서 지붕에서 보이는 3개의 박공 크기는 자세히 보면 좌우 대칭이 아니다.

관가정과 서백당의 경우는 실내의 기능과 관계없이 지붕의 박공면이 일정한 크기로 구성되어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6 인지 체계

6-1. 공간과 통로

대문을 들어섰을 때부터 안마당에 이르는 과정에는 건축적 체험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 향단에서는 줄곧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사람을 이끌던 힘의 주체는 안마당 공간으로 연결된다. 비로소 안마당 공간에 이르러서야 모든 긴장이 풀어지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건축적 장소의 체험을 하게 된다.

향단에 보이는 공간과 동선의 관계는 통로라는 개념으로 접근된다.

행랑채와 안채의 기단이 이루는 통로는 좌우에 사랑마당과 부엌으로 연결된다. 이 공간의 형태 구성은 축대와 행랑채 벽, 지붕으로 구성되며, 시선은 어두운 부엌 쪽 방향보다는 밝은 사랑채로 이어진다. 통로내의 빛은 축대 위의 난간에 비추어진 빛으로 인해 윗 부분이 밝은 형상을 하고 있다. 이것은 고도의 조도 체계로 밝기의 차이로 인해 위계를 구분하고 있다.

다음의 통로는 사랑채 마당에서 대문으로 들어가는 공간이다. 이 공간의 구성은 행랑채의 지붕과 사랑채의 벽면, 안대청의 판문, 그리고 지붕으로 구성된다. 내려다보이는 지붕, 한쪽은 막히고, 한쪽으로 트인 공간은 좁은 통로공간을 넓게 인지하게 한다. 지붕에 반사되는 빛을 통해 밝은 공간을 감지하게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랑채에서 완전히 트인 공간의 밝음과는 대비된다.

다음은 대문에서 안마당으로 이어지는 통로이다. 대문의 높이를 낮추고, 어둡게 처리함으로써 안마당의 밝기를 극적으로 처리했다.

이러한 일련의 진입에 따른 통로의 구성은 어둡고 밝은 공간의 배열을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행랑채의 어두움, 사랑채의 밝음, 안채 마당의 밝음을 전제로 통로는 이 밝음과 어두움을 확실히 인지시키기 위해 대비적 구성으로 계획되었다.

6-2 안마당의 시각적 영역

안마당에는 시각적 영역이 있다. 안마당에서의 시선은 안채와 후정, 그리고 사랑채, 사랑채 밖의 담, 또한 담 너머로까지 연결된다. 외부의 개방적 공간은 또다시 담장을 경계로 집밖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향단에서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안채의 툇마루와 사랑채의 판장문으로 구획되는 안마당 영역으로 시각적인 경계가 안방의 벽체와 창호, 건너방의 창호와 마루, 그리

고 사랑채의 판장문 안쪽이고, 이곳의 기능은 비어있는 공간으로 전체 건물 구성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

두 번째는 안마당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사랑채의 마루와 사랑방 그리고, 안방과 부엌으로 향하는 통로이다. 이 영역은 그 공간의 기능이 접대나 여유 공간으로 반 외부적 성격을 갖는다.

세 번째는 건물과 담장으로 구획된 사랑마당 영역이다. 이 영역은 현대적 개념의 정원 개념이다.

이들의 구성을 보면 안마당의 역할이 단순한 남녀 공간의 분리나 작업 공간에 있지 않고 전체 공간을 구성하는 능동적인 공간이며, 이 건물을 기억하게 하는 특징적인 공간임을 보여준다.

7. 결론

향단의 주거공간 구성 수법을 관계성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향단을 설계하고, 조영한 회재 선생은 모든 만물에는 理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理의 체계가 건축에서는 "관계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2) 관계구조에는 맥락적, 구성적 개념으로 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맥락적 개념은 의미체계와, 구성적 개념은 형상화체계로 구축된다.

3) 맥락적 개념으로 파악된 향단의 의미체계는 대지간의 위계에 따른 대응 방식을 전제로 한 의미체계를 실현함으로써, 산-마을-건물-마당의 상호관계를 조정하는 메카니즘으로 관계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4) 축대의 구성은 건물의 좌향을 결정하는 기준틀로 작용했다. 단차를 두어 대지 경사에 적응하면서, 최소한의 폭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건물의 깊이가 결정되었다. 즉, 남북의 대지는 짧고 동서로는 긴 대지가 형성되었다.

5) 각 단위 공간들간에 설정된 위계 질서가 그 자체에 뜻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동선의 과정 안에서 순차적인 경험을 통해 공간의 성격이 대비될 수 있도록 배열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6) 중앙의 안방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의 마당 공간의 성격 차이는 이들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통로로 공간의 변화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 통로는 위치와 모양으로 보아 단순히 영역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기능적 존재이유 이상으로 좌우측 공간간의 차이를 체험할 수 있는 미학적 요소로 형상화되어 있다.

7) 행랑채의 통로와 대문으로의 통로, 그리고 안마당으로 이어지는 내외의 관계를 이루는 형식을 정교한 위계적 구성의 차이로 실현시키고 있다.

8) 명료한 동선상의 위계 질서를 전제로 하여 단위 공간간의 윤곽 변환과 각각의 공간을 정의하는 일련의 형태 요소들 간의 변환을 통해 일관된 논리적 조정이 개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일련의 형태 구성 요소들간의 관계 논리는, 공간-동선 체계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귀결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입면의 지붕 박공 판은 단순한 입면 구성 요소로 기능하는 차원에서 동선 구조를 표현한 요소로 전환되어 전체의 내재적 질서에 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향단의 공간을 구성하는 관계 구조는 위계적 구성의 단차와 빛의 대비, 그리고 시각적인 개방성이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국역 회재전서』, 이동건 역, 묵민회갑기념사업회, 197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수리보고서(下)』,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1994.

김광언, 『한국의 옛집』, 마당, 1992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8

주남철, 『한국건축미』, 일지사, 1983

신영훈, 「궁실민가」, 『국보11』, 웅진출판,

1992
이상해, 「宋代理學思想을 통하여 본 전통건축의 구성방법 및 공간적 특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논문집(사회기술편)』, 제38집 제2권, 1987
정명호, 「회재유적 향단에 대하여」, 『고고미술』, 제9권 제11호(통권100호), 합본호
경상북도, 『양동마을조사보고서』, 1979
경주군, 『양동민속마을 정비계획조사보고서』 1994
강동진, 「경주 양동마을의 해석과 보전방법론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학전공 박사학위논문, 1997
소두영, 「구조주의」, 『대우학술총서14』, 민음사, 서울, 1988
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양좌동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0
장도규, 『회재 이언적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9
김억중, 「르 꼬르뷔지에 건축 형태구성의 자율조정 논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A Study on the Spatial Composition of Hyangdan

Ro, Dong-sung
(Proceeding Doctor Degree, University of Seoul)

Hong, Dae-Hyung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theory of the spatial composition that is " The Structure of Relation" in Korean traditional houses. This study has been focused on the spatial composition of Hyangdan.

The form composition is an element defining primitive functions and space and producing aesthetical effects, where 'quality as a substance' is not important but 'quality as a relation' is essential. Quality as a meaningful relationship comes from realization and regulation of visual attributes among form elements. Each form compositional element establishes the hierarchical structure logically with the entire order.

In order for the quality of all form compositional elements to be clarified as a meaningful relationship logically, 'compositional concept' which combines a series of form elements into the grammatical dependence to a specific direction, has to be assumed. If the intrinsic relationship among a series of form compositional elements fails to confront with the 'contextual concept' which eventually indicates unique conditions for a place according to the refined compositional concept, the result of form composition never leads to a specific solution